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으로 새사람이 됩시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성령을 처음 체험했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던 그들은 성령을 겪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두려움은 기쁨과 평화로움으로 바뀌고 닫아걸었던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기쁨과 평화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독서에서 각기 다른 외국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모두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알게 된 진리와 평화를 통해 세상 모두가 하나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처음 생긴 교회의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인가 환희에 찬듯하고 평화로워 보이면서도 매우 강렬합니다. 무상으로 내어주는 것이 기뻛고 오히려 섬기는 것이 기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삶이 왜 진리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눔과 섬김이 강물처럼 흘러넘쳤고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하느님 나라였고 천국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고보다는 원래 인간이 가진 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느님에게서 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의지하는 존재이고,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나누고 도와줘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이 발전해갈수록 안타까워지는 것은 서서히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신앙인들은 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미가 풍기는, 사람 냄새가 나는, 푸근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쉽게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에게 내려오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통해 성령으로 새사람이 됩시다.



이상록 요한 신부 | 교구 홍보국장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사도 2,1-11
화 답 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 2 독 서	1코린 12,3ㄷ-7,12-13 또는 로마 8,8-17
복 음	요한 20,19-23 또는 14,15-16,23ㄴ-26

사랑(4)

사랑은 네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단계의 사랑은 관심(關心)이다.

누구에게나 무슨 일이나 관심을 쏟는 일이 사랑의 시작이 된다. 관심 여부에 따라 일이 잘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키우는 화초나 동물도 주인의 관심에 따라 성장 모습이 달라진다. 또 관심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가져다주며, 서로의 관계도 친밀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한다. 무관심이야말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암초(暗礁)요, 자신의 변화와 성숙에 걸림돌이 된다. 결국 무관심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경향으로 흘러 이기주의자가 되게 한다. 그래서 관심을 쏟고 뭐든지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기고, 무관심하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곗거리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단계의 사랑은 이해(理解)이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 대부분은 서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오해(誤解)하면 미움이 발생하고, 때로는 원한과 복수심이 생겨나는 이유도 그러하다.

이해를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한다. understand는 under(밑에)와 stand(서다)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이해한다는 것은 '밑으로 다가선다'라는 뜻이다. 즉 너를 이해한다는 것은 네 처지에서 너를 바라보고, 너의 입장을 헤아린다는 말이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해가 되면, 한 대 얻어맞거나 좀 손해를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이해가 잘되면 더 많은 자비와 용서가 베풀어지고, 더 큰 일치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단계의 사랑은 책임(責任)이다.

맡기는 것은 위임(委任)이요, 맡는 것은 책임이 된다. 그래서 사랑에는 관심이나 이해와 함께 책임도 뒤따른다. 책임을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도맡아 해야 할 임무나 의무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책임 자각이 인생의 시작이고, 책임 완수가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 나태한 생활이나 책임 전가도 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단계의 사랑은 희생(犧牲)이다.

희생은 남을 위하여 제 몸이나 재물 따위를 버리거나 바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하여 희생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다.

초가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빛을 내듯이, 희생은 자신을 바쳐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 소금이 음식에 녹아 부패를 방지하거나 맛을 내주듯이, 희생은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다. 영어로 희생을 sacrifice라고 한다. 이것은 제물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러므로 희생은 한마디로 남을 위해 제물이 되는 일이다. 야구에서도 '희생타(犧牲打)'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필요할 때 타자(打者) 자신은 죽지만, 자기편의 주자(走者)를 다음 루(壘)로 보내거나 점수를 올리게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다섯 가지 맛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짭맛이다. 인생살이에 는 두 가지 맛이 있다. 무엇일까? 그것은 죽을 맛과 살맛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관심, 이해, 책임, 희생의 삶을 통해 살맛 나는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장미의 기도

김혜숙 보나 시인/ 가톨릭문인회

주님 함께
면류관 쓰신 어머니
숨결 모아 장미를 피워 주신다

‘나의 어머니’라고 서슴없이 부르는
내 영혼 가장 아름다운 곳에 계시는 어머니
이 계절 자애로우신 사랑 더 깊이 어리어
마음결 굽이굽이 장미를 두르면
가시에도 찢려야 하리
아픔도 치유라 여기며
고뇌 더한 번민도 신는다

생이여,
어둡고 아픈 세상 어루만져 주시는데
꽃은 피어 사랑이니
고통도 슬픔도 지나가게 하소서

울지 마라 장미여,
살더라도 죽더라도 어머니 품이면
눈물도 향기로우리니
장미처럼 고우리니

한 송이 열 송이 그리고 그리고
연민으로 앉아 희망으로 서서
장미의 줄기 타며 기도드린다

진동본당 ‘본당은 우리’ 연수 실시



진동본당(주임: 조정제 오달론 신부)은 5월 15일 ‘본당은 우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2023년 본당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화합과 일치를 이루고 신앙생활의 열정을 올리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본당 신자 58명이 참석하였다. 연수는 마산교구 ME 협의회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본당 신자들은 연수를 통하여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던 마음이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신자들 간의 일치와 한마음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구원’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참 많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둘 다 아픈 사람들이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아픔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없던 새로운 아픔이 지나간 아픔을 대신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그 옛날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아픈 많은 사람들이 사제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래서 많은 사제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 그리고 어느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적 같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예전 어느 본당의 주임 신부로 있을 때 자매님 한 분이 울면서 기도를 청했다. 남편이 최근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란다. 알겠으니 자매님도 남편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다. 암에 걸린 남편은 오랜 세월 ‘냉담’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자매님과 함께 성당에 나와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나도 자매님의 남편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1년 후에 정말 기적처럼 그 자매님 남편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리고... 그 남편은 더 이상 성당에 나오지 않았다. 자매님에게 물어보니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골프치러 다니느라 많이 바쁘단다. 병이 나은 것은 참 잘된 일이긴 한데 마음이 영 찝찝했다. 그 형제님, 그냥 이대로 괜찮은 걸까?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열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루카 17,17-18)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루카 17,19)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몸이 다 나은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구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은 몸의 치유라는 ‘첫 번째 구원’에 이은 그 무언가에 대한 ‘두 번째 구원’이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일까?

‘벧자타 못 가의 병자’를 떠올려보자. 예수님은 벧자타 못 가의 병자들 중에서 무려 서른여덟 해나 앓아누워 있는 병자를 치유해 주신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건강하게 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요한 5,14)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는가? 몸이 건강하게 된 ‘첫 번째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영혼이 건강해지는 ‘두 번째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으로서 ‘첫 번째 구원’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즉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참된 구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그것은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결국 ‘두 번째 구원’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첫 번째 구원’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닌가!

이러한 점은 ‘되돌아오는 악령’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분명해진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설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에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루카 11,24-26)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영혼의 요요현상’이다. 나쁜 것을 비워서 건강해졌으면 좋은 것으로 채워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이 들어앉아 처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 구원’이 ‘두 번째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주시어 건강하게 되었으면 그 건강한 몸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여 그 삶을 성령으로 채워나가야 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유혹에 걸려 넘어져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거다. 소경이 눈을 떴으면 좋은 것을 봐야 하고, 귀머거리 병어리가 귀와 입이 뚫려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잘 듣고 잘 말해야 하고,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되었으면 그 성한 몸으로 좋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거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루카 17,13) 그 옛날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애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빈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온갖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데 그것뿐이다. 그다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병이 나으면 그다음은?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는? 취직한 다음에는? 사업이 잘되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는? 온갖 어려움이 사라진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통 ‘첫 번째 구원’에만 머물러 있을 뿐 ‘두 번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바라는 것을 이루고도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던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참 귀한 세상이다.

문득 예전 그 자매님의 남편이 지금은 어찌 사시는지 궁금해진다. 아무쪼록 그 형제님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잘 살면 좋겠다. 과연 믿음으로써 ‘두 번째 구원’을 얻은 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인생의 끝이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출처 : 월간 생활성서





기억할 선종 사제
이응석(프란치스코) 신부
2010년 6월 8일

故 이응석 프란치스코 신부 12주기 추모미사

일시: 6월 8일(수)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남경철 신부 010·9514·0825

故 정삼규 요한 몬시뇰 23주기 추모미사

일시: 6월 15일(수)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정영규 신부 010·3599·2009
▶미사 후 점심 식사 준비

본당 재정업무 지도방문

일시: 6월 8일(수)
본당: 복신동/ 태평동/ 대건
일시: 6월 9일(목)
본당: 옥포/ 장승포/ 지세포/ 거제성지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6월 7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성지 및 사적지 정비위원회

일시: 6월 9일(목) 11:00
장소: 교구청

예비신학교, 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시: 6월 12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제5회 울타리 성경 잔치

일시: 6월 12일(주일) 13:30
장소: 성지여고 강당

교구 성경 특강

일시 및 장소: 6월 13일(월) 칠암동성당
6월 14일(화) 명서동성당
10:00~13:10
주제: “예언자들: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동정 하시는 얼굴”-예언서
강사: 조우현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수)
참가비: 5천 원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5~6

▶위원회/기관/단체

제10회 한국가톨릭농아인의날

일시: 6월 5일(주일) 10:30~18:00
장소: 전주지명자산 평화의 전당
▶농아인의 날 참석으로 6월에는 수어미사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6월 기도모임

일시: 6월 6일(월) 14:00-성체조배
14:40-미사(주례: 정운호 신부)
15:20-회의
장소: 옥봉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교구 봉사자
문의: 회장 010·3903·8234

▶기 타

부모성격과 자녀양육 / 학습유형과 진로탐색

일시: 6월 4일, 6월 11일, 6월 25일, 7월 23일
토요일 10:00~13:00

장소: 젊음의 집/ 비용: 1인 2만 원
대상: 초등 5학년 이상 중·고등학생, 부모님
문의: 젊음의 집 055·255·8295, 010·5558·3892

모래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름신앙 1일 캠프

일시: 7월~8월 10:00~17:00
장소: 젊음의 집/ 비용: 1인 3만 원(점심 자체해결)
대상: 초등 5학년 이상 중등·주일학교
문의: 젊음의 집 055·255·8295, 010·7661·3832

국내 청년 5·18순례 캠프 참가 모집

내용: 천주교광주대교구 기관 광주인권평화재단에서 전국 교구의 청년 신자들 대상으로 ‘국내 청년 5·18순례 캠프-님을 알고, 배우고, 따르는 여정을 기획하였습니다. 청년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ghpf.or.kr) 참조 바랍니다.
문의: 062·234·2737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동영상 녹화 강의(7월 개강)

▶동영상 링크 발송, 1주일 동안 수강
내용: ·사랑의 법, 영혼의 법-하느님의 사랑, 성사(이혼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구약성경 기초 입문(주원준 박사)
·의식(양심)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권오면 신부)
·육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문유성 신부)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전주희 수사)
·육화의 영성-일상을 살아가는 영성과 겸손(손우배 신부)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6월 11일(토)~12일(주일)/
7월 9일(토)~10일(주일)
3박 4일- 6월 16일(목)~19일(주일)/
7월 14일(목)~17일(주일)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시	원하는 곳	010·6608·3217(김종관 미카엘 신부)	ofmkvocation@gmail.com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매주 월, 목, 금요일 출발

■한국성지 167 완주
6. 27.(월)~30.(목) 인천·의정부교구 4일
7. 18.(월)~21.(목) 원주·춘천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세계최초 음향표준 이어폰
당신이 꿈꿔왔던 감동의소리를 만나보세요

SONICAST dire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sonicast>
(네이버에서 '소니캐스트'로 검색 가능)
대표 이사: 이의철 대건 안드레아/ 055-288-3768



8박 9일- 6월 27일(월)~7월 5일(화)/
8월 4일(목)~12일(금)
40일: 9월 14일(수)~10월 23일(주일)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파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6월 12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있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
일시: 6월 13일~15일/ 7월 3일~5일/ 7월 8일~10일/
7월 23일~25일/ 7월 31일~8월 2일/
8월 6일~9일/ 8월 13일~16일/ 8월 27일~29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먼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6월 20일~22일/ 7월 21일~23일/
7월 30일~8월 2일/ 8월 6일~9일/
8월 12일~15일(여름해변자유시간)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재속 프란치스코 지원자 모집
모집기간: 4월~6월
과정: 지원자반 1년 교육 후 입회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
적 삶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
문의: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 프란치스코회 유프라(청년 모집)
모집기간: 4월~6월
대상: 신자 및 비신자로서 18~35세 미만의
미혼 남 여/ 태양과 바람 나무를 사랑
하고 성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살
기를 바라는 젊은이
문의: 010·4557·5134, 010·6711·4014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시설관리 1명, 주방 1명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접수: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cecomasan@gmail.com)
문의: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면접 추후 개별 통보

평거동본당 제2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장재민(요셉)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위문수(미카엘)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안현주(비비아나)
총무: 박쌍철(안젤로)
기획·교육분과위원장: 위문수(미카엘)-겸임
재경분과위원장: 박찬우(아우구스티노)
전례분과위원장: 조민숙(실비아)
시설분과위원장: 전동일(토마스 아퀴나스)
사회·복지분과위원장: 한갑련(엘리사벳)
청소년분과위원장: 박정미(세레나)
복음화분과위원장: 하승희(글라라)
홍보분과위원장: 서영임(데레사)

레지오 마리에 창설 100주년 기념 감사미사



일시: 6월 6일(월) 14:00
장소: 사과동성당
집전: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교구 사제단

천주교마산교구 CATHOLIC DIOCESE OF MASAN

예수성심성월 6월, 평화의 달

1. 평화아카데미
일시: 2022년 6월 15일(수) 19시
장소: 천주교마산교구청 강당
주제: "과연,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가능한가?"
강사: 사회속 스텔라 수녀님(통정 포교 베네딕토수녀회 서울수녀원)

2.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월 기도
기간: 2022년 6월 17일(금)~25일(토)
가톨릭기도서 109면, 매일 미사 204면

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한반도 평화기원미사
일시: 2022년 6월 25일(토) 18시
장소: 회원동성당(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23)

천주교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제16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금)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아버지 뜻대로... Non mea, Sed Tua!

나자렛 예수 수녀회

“임은 아버지 뜻 따라 구원의 잔을 높이 올렸다네. 거룩한 주님의 부활로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당신 성혈로 잔을 이뤘네. 임의 그 사랑 나도 따라서 세상의 참 사도 되리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당신 앞에 나아가리라.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주여. 내 영원히 따르리라.”

예수 성심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가끔씩 내 의지가 하느님의 뜻 위에 자리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현정수 신부님의 ‘아버지 뜻대로’라는 노래를 떠올려봅니다.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협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갖가지 핑계와 타당성을 제 나름의 논리로 나열하면서 결국은 친교의 대화가 아닌 예수님을 향한 일방적인 토론으로 치닫고 있음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아버지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시키려 했던 저의 강한 의지를 내려놓으며 예수님의 마음과 제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생활 안에서 만나는 작은 집착의 포기로 인해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몸을 녹이는 소금처럼 아픔이 따르지만, 온전하게 녹아버린 소금과 물이 하나를 이루듯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매일의 삶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주님만이 나의 빛, 나의 사랑이요, 참 소망임을 고백하며, 진리이신 주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오롯이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받는 선물은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 하느님이 아닌 세상의 애착에서 벗어나는 자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예수님께로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닳을 예수님께 내려야 합니다. 빈 깡통은 어린이가 밟아도 쉽게 찌그러지지만 모래로 가득히 채워진 깡통은 천하장사가 밟아도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머물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신앙의 여정과 수도 여정이라는 순례의 길을 자유롭고 담대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걷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6월은 성부의 뜻을 항상 마음에 지니신 예수 성심의 자비로운 사랑이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당신을 따르도록 나를 부르셨을 때의 기억, 나의 삶의 그물들이 그분 말씀의 바다 위로 내려졌던 기쁨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이끌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에 놓여 있는가? 내 마음이 찾고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진리이신 주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마음을 닮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께 청해 봅니다.

성부께 오롯한 믿음을 두신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눈과 주님 말씀으로 기울여지는 겸손한 귀와 주님의 마음이 스며들 수 있는 열려 있는 텅 빈 침묵의 마음을 주시어 오직 진리이신 주님께 참된 믿음으로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의 지극한 사랑 안에 머무르시는 예수님과 같이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신을 비우시고, 온전히 순명하신 믿음과 같이 주님과 연결된 신뢰라는 믿음의 끈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마음 깊은 곳에 영원한 자유로움으로 함께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 감사로이 신앙생활과 봉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안에 머무르는 예수 성심 성월을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